

국보관

동조화원경

국보

이것은 서금당(西金堂)이 734년에 건립되었을 때 사당 내부에 모셔져 있던, 원래 ‘금고(金鼓: 쇠북)’라 불리던 악기입니다. 사당 내부의 배치는 불교 경전 『금광명최승왕경』을 참고한 것입니다.

화원경(또는 금고)은 무로마치 시대(1336~1573년)에 이미 이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. 화원 지방은 현재의 산시성 야오저우에 해당하는데, 화원경과 같은 쇠북에 사용되는 석판의 산출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. 현재 남아 있는 이 쇠북은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년)에 교체된 것으로 돌이 아닌 동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.

앞에 있는 사자 뒤에 달린 육각형 기둥은 헤이안 시대(794~1185년)에 덧붙여진 것으로, 암수 두 마리의 용이 기둥 상단을 휘감고 주변을 노려보고 있습니다. 두 용의 몸통이 원의 좌우 각각 절반을 구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 안에 쇠북이 달려 있습니다. 이 쇠북에는 원래 금박이 입혀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섬세한 주조 기술로 볼 때 이 작품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, 아마 당나라(618~907년)에서 제작되어 나라 시대(710~794년)에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